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1기 개강

불교 의식 체계적 교육
25년 1월까지 매주 강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은 8월 26일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제1기 염불교육원 개강식을 봉행했다.

불전 상용의식과 전통의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태고종 염불교육원 1기'가 개강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8월 26일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 스님)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제1기 염불교육원 개강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염불교육원 1기'는 각종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불교의 혜명을 잇고 불법 홍포의 일익을 담당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교 전통의식(범패) 보존과 전승, 현대화를 통한 불교문화 창달과 보급에 기여한다.

염불교육원 강의는 기초반, 전문반으로 나뉘어 올해 8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기초반은 매주 월요일, 전문반은 매주 화요일 강의를 듣는다.

전문반은 경남교구 교육원장 환명 스님이 강사로 나서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시다림과 49재 등 재의식, 점안의식, 불교사물에 대한 의식을 집중 강의한다. 수료식 전에는 선암사 전통의식 1박 2일 체험도 계획 중이다.

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만큼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야 그것이 좋은 의식이 된다" 며 "성심 성의껏 지도해서 바른 염불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교구 종무원 집행부는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마곡사 약효 대종사 96주기 추모 다례재

8월 26일 경내 대광보전서



마곡사가 근대 불화의 한 획을 그은 약효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8월 26일 경내 대광보전에서 근대불화 '남방화소'의 '계룡산화파'를 구축한 약효 대종사 9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마곡사 총무국장 원묵 스님과 교구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약효 대종사의 맥을 잇는 병진 스님, 불모 전연호 일섭문도회 이사장와 문도회가 참석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금어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개관에 맞추어 전시할 수 있도록 스님의 작품을 모으는 데 문도와 후학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호당 약효 대종사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근세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계룡산화파'를 만들어 후학을 양성에 매진하고 1928년 세수 83세로 입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산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재 입재식

8월 24일 보원사 경내서



서산 보원사(주지 단경 스님)는 8월 24일 경내에서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수륙재는 영가천도, 수명장수, 질병구제, 수상안전만이 아니라 호국영령들과 천지를 떠도는 고혼들을 위하여 올리는 국가 행사이다. 보원사가 소장 중인 16~17세기 목판에는 수륙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수륙무차재문을 기반으로 치뤄진 입재식은 온 법계 성범(聖凡)을 초청하는 △도량건립의식에 이어 △사자단의식 △오로단의식 △영혼식 △관욕식 △상단권공과화엄의식으로 진행됐다.

총 8회로 진행되는 수륙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 회향까지 이어진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소통·어울림'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8월 25일 김해문화의전당서
김수로 · 허황후 인연 예술화

명상 문화 선양을 위해 열리는 가야명상문화축제가 올해 8회째를 맞아 개최됐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스님)은 8월 25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1부 명상의 소리 △2부 천연인연 화혼-Propose 주제로 진행됐다.

1부의 1막에서는 봄눈별, 김미정, 최가영이 출연해 가야의 혼과 우리의 혼이 어떻게 얼개를 이루고 있는지 더듬어보고 2막에서는 미타선원 하림 스님의 명상 강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아름다운 인연을 공연으로 선보였다. 두 인연의 프로포즈와 화혼을 오케스트라에 맞춰 여성합창, 남녀독창, 남성중창, 혼성중창, 혼성합창 등으로 공연했다. 춤과 낭송, 스님의 성혼선언문 낭독, 영상, 음향 등이 추가돼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래 가진 나의 보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현대인의 일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김해 시민과 모든 국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가야의 문화와 예술혼이 선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문화진흥원은 8월 25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찰음식, 불교·이슬람·기독교 잇다

8월 22일 사찰 경내 약사전서
파순단대, 평택대 관계자 초청
적문 스님 사찰음식 만찬 진행

평택 수도사가 사찰음식으로 종교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8월 22일 경내 약사전에서 인도네시아 파순단대 아자르 아판디(Prof. Dr Haji Azhar Affandi)총장 일행과 정장선 평택시장, 기독교 대학인 평택대 부총장 및 관계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직접 조리한 방한 환영 만찬을 진행했다.

이번 환영 만찬은 양국 대학 간 MOU 체결과 함께 진행된 '적문 스님의 환영 만찬'으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종교를 넘어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적문 스님은 "이슬람교에서 금기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이야말로 종교화합에 어울리는 우리의 음식문화이자 평화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아자르 아판디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세계적인 대승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광경이다"며 "사찰음식 명장인 적문 스님이 손수 마련한 음식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평택 수도사는 8월 22일 파순단대 · 평택대 관계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했다.

마하위하라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8월 25일 유원대 대강당서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가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아산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가 8월 25일 유원대 대강당에서 창건 1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기념 법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하고 스리랑카 독립 텔레비전 방송(ITN)이 본국에서 방송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마하위하라 사찰이 교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는 불교 정신과 박사 삿다지와 스님, 스리왈뜨느 정신과 의사, 수따 음악 치유사, 하싼다 정신과 박사 등을 초청해 한국에 거주하는 25000여 명의 스리랑카인들의 자살, 도박, 음주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담하는 '심리치유 토크쇼'를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